

무안 양파 산업 육성 속도낸다

발전방안 TF팀 운영...5개 분야·15개 시책 발굴
생산조정제·공공수매제·융복합 테마파크 등 추진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이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농업,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술원 등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안 양파산업 발전 방안 마련 TF팀' 전체 회의를 열었다. 무안군 앞서 지난 8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 전체 회의에서는 양파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관리와 유통·가공 및 6차산업화, 명품화 교육 등 5개 분야 15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관리 분야에서는 양파 생산조정제와 종자개발 및 국산 종자보급, 양파 기계화 지속 확대, 국립파속채소 연구소 무안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한다.

유통·가공 분야에서는 양파 수매등급제 개선, 채소 국가 수매제 및 공공 수매제 시행, 수출확대, 양파 직거래 확대 및 소비촉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파 명품화를 위해서는 양파즙 등 제조기술 표준화와 대량소비 확대, 양파 대체 고구마 산업 육성을 위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안양파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조성될 첨단농업 복합단지내에 농업과 관광, 양파가 융복합된 테마파크 조성 과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대학교 박양근 교수 등 자문팀은 TF팀이 도출한 양파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양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화 조기 정착에 역점을 두고 적정면적 유지와 안정적 판로 확보 등 군과 농업, 농가, 가공업체 등이 협력해 농가 실질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양파산업 육성 대책 마련에 지속되는 채소류 가격불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근심을 덜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가 7일 대불 산학융합지구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대불 산학융합지구 조선업 부흥 '디딤돌'

인재 양성·공급 활력소...청년일자리 창출 기여

영암 대불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가 인력양성 등 조선산업 부흥의 디딤돌로 거듭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불 산학융합지구는 지난 2015년 9월 조성을 완료했다. 산학융합 캠퍼스에 목포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기계신소재공학과, 조선시스템학과 등 3개 학과(학생 256명·교수 27명)가 이전에 운영되고 있다. 기존 전남테크노파크 건물을 활용한 기업연구관은 24개 기업이 입주해 특히 37건을 확보하고 연구과제 55건을 수행했다.

작 프로그램 운영(16개사), 산학공동 연구개발 수행 50개 과제, 기업애로기술 해결(362건) 등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날 대불 산학융합지구를 방문, 운영상황을 점검한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그동안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조선산업이 선박수주 증가와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대불 산학융합지구가 조선업 부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불 산학융합원지구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재를 양성·공급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결과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불 산학융합원은 특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 R&D-인력양성-고용의 집적화를 구현했다. 지난 2014년부터 특성화고 선취업-후진학과정으로 381명의 학생이 취업과 동시에 목포대 조선시스템학과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 근로자 평생학습 교육 91개 과정(2,094명), 현장 맞춤형 교육 209개 과정(166개 기업, 1,403명), 창업기업 정

인재 양성·공급 활력소...청년일자리 창출 기여. 대불 산학융합원은 특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조성, R&D-인력양성-고용의 집적화를 구현했다. 한편, 산학융합원지구는 대불 산학융합원지구를 포함해 전국에 13곳이 조성돼 운영 중이다. 전남에선 여수국가산단 내 여수산학융합지구와 나주혁신산단 내 나주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지구를 올 상반기에 조성, 9월초 9개 학과(648명)가 이전했다. /정근산 기자

양파 신제품 개발·보급 본격화

전남농기원, (주)제농과 업무협약...종자산업 허브 구축

전남농업기술원이 국내 최대 양파 종자회사인 (주)제농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제품 개발과 생산, 유통을 본격화 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양파 유전자원 공유와 신제품 개발, 종자 생산과 유통 등 전남양파 종자산업의 허브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전남농기원과 (주)제농은 우량 유전자원 공유와 품종개발에 공동 노력을

일부산 품종에 비해 분구와 추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량이 높은 2종의 품종을 개발했다. 신제품은 품종보호출원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판매할 계획이다. 전남농기원 김성일 원장은 7일 "양 기관이 협력해 품종개발 작목 확대와 종자 전문생산단지 육성, 수출 기반을 마련해 미래 농산업의 핵심소재로 종자산업을 키



전남농업기술원이 (주)제농과 업무협약을 맺고 양파 신제품 개발을 본격화 한다.

워가겠다"며 "종자산업을 블루이코노미 비전과 연계하는 한편 민관산학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양파 육종·종식·판매 허브를 구축해 종자로 돈 버는 농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주)제농 김태형 대표이사는 "양파는 글로벌 식재료로 대한민국 종자시장을 넘어 세계 수출시장에 도전, K-seed 열풍의 파도를 일으켜 보자"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신안 '섬 낙지축제' 서 오감만족 하세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압해 송공항 일대 개최
비빔밥 만들기 등 진행



지난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된 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신안군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압해를 송공항 일대에서 '섬 낙지축제'를 개최한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낙지의 주요 생산지인 압해도에서 열리는 축제는 축하행사를 시작으로 낙지회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왕새우와 전복, 김, 무화과, 배 등 농수산물 판매행사도 병행해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낙지를 활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전시와 현장 판매행사, 택배주문 배송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낙지장인 지정증 교부식도 갖는다. 신안군의 낙지 생산량은 2,000여기가 연간 24만점을 잡아 384억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 청정 갯벌에서 잡히는 낙지는 맛과 영양면에서 탁월하나

지금까지 그 명성은 목포 세발낙지에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은 지난해 갯벌낙지 맨손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된 이후 낙지의 우수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압해읍 수락마을 갯벌 일원에서 '제1회 신안군 맨손 낙지잡이 장인

선발대회'를 열고 군 조례에 근거해 신안군 수산업 장인으로 지정, 2년간 연 2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144km의 넓은 갯벌도립공원과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신안에서 맨손 낙지잡이의 전통기술과 문화를 계승해 어촌의 중요한 가치를 관리하고 보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했다. 박우량 군수는 "미네랄이 풍부한 청정갯벌에서 잡히는 낙지는 신안군의 대표적 수산물이다"며 "압해도에서 열리는 낙지 축제장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 미식가 등이 방문해 오감을 만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완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 선정

내년 '가리포 500년 조선 수군과 노닐다!' 진행

완도군의 '가리포 500년 조선 수군과 노닐다!' 프로그램이 문화재청의 2020년 생생 문화재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생생 문화재는 문화재 활용이 최대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엔 선정된 사업의 대상 문화재는 완도 청해진유적(사적 제308호)·묘당도 이충무공유적(사적 제114호)·완도 객사(도 문화재자료 제109호) 등이다. 가리포진은 완도읍 근내리 일원을 일컫으며, 1521년(중종 16년)에 설립되고 1895년(고종 32년)에 폐진된 서남해안

의 중요한 수군진성이었다. 2년 후인 2021년이 가리포진 설립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리포 500년 조선 수군과 노닐다!'는 망월재현, 다도 체험, 판소리 배우기, 음악 콘서트, 문화유적 탐방 등으로 구성됐다.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완도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리포와! 뽀뽀! FUN FUN! ▲가리포랑 놀자 ▲가리포 어디까지 알고 있니? 등 3가지 주제다. 참여대상은 자유학기제가 진행되고 있는 관내 중학생과 지역 주민, 국내·외 관광객 등이다. /완도=최규국 기자

클릭! 고향 소식



진도 철마도서관, 어린이 인형극

진도 철마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이 열렸다. 7일 철마도서관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둔 가정의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해 어린이 인형극 '악어 꼭꼭이도 오리 가족' 공연을 펼쳤다. 도서관 관계자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영암읍 지사협 반찬 나눔 봉사

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독거노인과 장애인 35가구에 반찬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반찬을 전달받은 어르신들은 "혼자 있어 식사준비가 힘들었는데 매달 잊지 않

고 찾아줘 고맙다"고 말했다. 정제기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영암읍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무안 '치매힐링데이' 행사

무안군은 최근 일로읍 다목적체육관에서 치매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치매힐링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치매예방 체조시연과 OX 퀴즈 풀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치매는 나와 내 가족의 일임을 인식하고 편견이 아닌 배려로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는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